

온 교회가 (The Whole Church) 온전한 복음을 (The Whole Gospel) 온 세계에! (The Whole World!)

‘714 기도대성회’ 7월 14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2023 카운트다운’ 7월 15~16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2024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한다. 오는 7월 14일(금) ‘714 기도대성회’와 7월 15~16일 ‘2023 대학 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카운트다운)’이 막 오른다.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 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대성회’는 7월 14일(금)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다.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한 교회의 복음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내년에 있을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다.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꾀하는 장(場)이기도 하다.

714 기도대성회는 세 파트로 이어진다. 파트1에서는 주안장로교회팀 찬양, 이재훈 목사 개회사,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메시지, 파트2에서는 더사랑의교회팀 찬양,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메시지, 제4차 로잔대회와 중보기도 참여방안 안내 서약식, 파트3에서는 온누리교회팀 찬양, 유기성 목사(WJM이사장) 메시지, 기도선포, 축도 등을 한다. 714 기도대성회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포스터 큐알코드에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2023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에서도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한다. 7월 15일(토)과 16일(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를 주제로 막 오른다. 로잔운동의 핵심가치이자 모토인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을 온 세계에(The Whole World!)’를 주제로 정했다.

카운트다운에서는 7월 15일(토)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The Whole Church’,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The Whole Gospel’,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The Whole World’, 16일(주일) 이재훈 목사 ‘Come to worship’, 유기성 목사(WJM이사장) ‘Go to the nations’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스톤게이트(심형진 목사), 홀리웨이브(지구촌교회 젊은이예배), 온누리교회 홀리임팩트팀이 찬양을 인도한다. 게스트로는 선예, 카우치워십, 홍이사, 범키, 하다쉬뮤직, 크룩스, 박민혜가 함께 한다.

카운트다운 집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대학청년부 각 공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대성회

2023.7.14 (금) 오후 2시-9시
송도 컨벤시아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



유기성 목사
WJM 이사장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자
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

신청 QR 코드



Lausanne
MOVEMENT

동체 전자주보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오른쪽 큐알코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이다. 회비는 신청 주차 소요 일 자정까지 입금해야 한다. 입금할 때 이름과 연락처 끝 네 자리를 함께 적어야 한다(ex. 홍길동8572).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타 교회 성도들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및 회비 납부를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6월 15일과 16일 집회 현장에서 ‘2023년 아웃리치 굿즈’를 준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

2023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여름캠프가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를 주제로 시작된다. 예수님의꿈아이(이하 예꿈)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자라는땅(이하 꿈땅)과 파워웨이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외부 및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이어진다. 예꿈에서는 ‘네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와! 예수님이 도우셨어요’, ‘야호! 예수님이 보내셨어요’를 주제로 적응 놀이와 체험활동을 한다. 꿈땅에서는 ‘부르신 예수님’, ‘도우신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 퀴즈와 카드놀이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 여름캠프는 ‘익투스’를 주제로 이어진다. 서빙고 파워웨이브는 미리내 내설악,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동흥천교회, 충북 제천청소년수련원에서, 양재 파워웨이브는 강화 성산청소년수련원, 단양 청소년수련원, 도곡 파워웨이브는 숲속의 아침, 동흥천교회에서 여름캠프를 한다. 다른 캠퍼스에서도 일정에 맞춰 여름캠프를 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오کل랜드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오کل랜드온누리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오کل랜드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부흥축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지난 6월 9~11일 개최했다. 김승수 목사(인천온누리교회)가 3일 동안 ‘새로운 시작’,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오کل랜드온누리교회 성도 600명이 참석했다.

유현목 목사(오کل랜드온누리교회 담당)는 “오کل랜드온누리교회가 스무 살 청년이 됐다”면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과 꿈을 다시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오کل랜드온누리교회는 2003년 6월 8일 창립했다. 1대 김병호 목사, 2대 서재범 목사, 3대 김치성 목사, 4대 안광국 목사, 현재 5대 유현목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양지온누리교회 창립 11주년

양지온누리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감사하는 창립감사예배를 6월 25일(주일) 오전 11시 30분 양지온누리교회 분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 축하 영상, 박철웅 목사 설교, 양지 차세대 특순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철웅 목사(양지온누리교회 담당)는 “양지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 선교의 중심부에 세워진 교회”라며 “양지온누리교회가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서

창세기 2:4~17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27절에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이르러서 인간 창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일간의 창조 가운데 창조된 인간도 피조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2장에서는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임재하시며,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인간과 교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세계가 인간보다 앞서 창조된 것을 보여줬다면, 2장에서는 인간을 위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7절).

다른 생명체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토기장이가 되셔서 흙을 손수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인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음으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진화를 통해 동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동물계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의 몸과 형태를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동물은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모든 동물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인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과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인간이 먼저였습니다. 인간이 먼저고 동물이 그 다음이었지만, 나온 순서는 동물이 먼저고 나중에 인간이 나왔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짐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기능을 인간에게 넣어주셨기에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기, 곧 호흡을 인간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동산과 하나님의 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15절).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E문서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J문서라고 합니다. 다른 루트로 왔기 때문에 다시 분류해야 한다며 성경을 해체 시킵니다. 매우 위험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과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동산은 두 가지 면에서 지구 전체의 나머지 세계와 구별됩니다. 첫째 ‘동쪽의 에덴’이라는 표현을 보면 지구 전체가 에덴동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동쪽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한 방향, 한 지역에 세워진 장소입니다. 둘째,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다른 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지구 전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조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에덴동산은 지구와 또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지구상의 어느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개의 강이 합쳐져 흘러가는 규모였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이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비손과 기혼은 오늘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지역이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아직도 남아 있는 이름입니다. 이라크를 가로질러 페르시아 만으로 흐르는 강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명이 맞다면 그 어딘가에 실제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창조의 공간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먹고 노는 공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동하는 장소였습니다. 에덴이라는 이

름도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창세기> 2장 5~6절을 보면 그때 지구의 상태가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안개가 땅에서 솟아 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해로운 대기의 변화, 불규칙한 대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도 독성이 있는 열매가 없었고, 상처를 입히는 가시나 영경위가 없는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은 조화로운 상태이자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며 인간을 찾으시고 말씀하시며 대화하시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동산에 두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 동산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이 지구 전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동산 밖에 있는 수많은 땅을 또 다른 에덴, 더 나은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의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9절).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를 부각합니다. 다른 나무들과 다른 목적을 가진 두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덴동산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라 일컬어졌고, 또 다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두 개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의 존재와 관련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크게 두 존재로 나누면 육체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육체의 영역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는 영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영혼의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존재인 것처럼, 이 두 나무의 목적도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을 부응합니다. 한 나무는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목적으로 지어졌기에 생명나무라고 하고,

“하나님 창조계획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변화시킨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나무는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의식, 지식, 영혼을 지탱해주는 나무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을 지식의 나무, 양심의 나무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동산의 다른 나무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자연적 생명을 지탱하는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배고픔만 해결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단순한 자연적, 물질적 몸을 지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몸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시켜 가는 목적을 위해서 기획하셨습니다. 아담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와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없으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언젠가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지만 타락할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었다라면 죽음을 겪지 않고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가 그 기능을 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생명나무의 특징을 알려면 정반대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가시 영경귀를 내는 저주받은 땅의 상태입니다. 독성을 가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 소염제 같은 많은 약이 나무의 독에서 추출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나무가 사람을 죽이 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의 뿌리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는 인간의 생명을 단지 지탱하는 의도가 아니라 더 높은 능력, 다른 차원의 상태로 옮겨주시려는 의도로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이후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향력이 더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일반적인 나무가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출발선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성장이 필요 없고, 어떤 변화가 필요 없는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해야 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에덴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16~17절).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를 직역하면 “너희는 죽음으로써 죽을 것이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열매에 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지키므로 누려지는 영적 생명을 잃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주어진 금지 명령은 영적 생명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된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창조 직후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옳지 않구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가 없을 때는 양심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양심도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양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였습니다. 믿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동물도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단순히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영적 생명과 육신의 생명 상태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 출발선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단 한 가지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얹매는 것일까요? 왜 한 가지만 금지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상이면 헛갈렸다고 변명할까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금지하신 것만 하지 않으면 성장의 상태가 인간에게 계속 주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성장을 하거나 역행하는 성장을 하거나 둘 중 한 방향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성장이 필요 없고, 시험도 필요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스스로 주권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스스로 선택을 통해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했으면 계속 성장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통해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 한 가운데 세워진 그 나무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통치권이 자신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라는 것, 자신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인간을 성장시키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룩한 성화와 영화화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받은 이 명령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홀로 있을 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택과 행위가 모든 인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것은 모든 인류의 잘못으로 전가되는 행위입니다.

동산 중앙에 세워두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피조물 중에 가장 나은 존재로 지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지 그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직후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높은 수준, 더 영광스러운 단계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뿐만 아니라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음으로써 영과 혼과 육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계속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영혼으로 성장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금지된 명령을 어김으로써 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인간은 알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양심도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만일 이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미움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반대의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나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나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 다. 두 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에덴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충만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좋은 것 중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동산에 있었던 그리스도 앞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두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두 나무를 통해 주시고자 했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습니다. 그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시는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서는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으니 죄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양심이 없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양심이 필요 없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되는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변화시킨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성별정체성 혼란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하는 법

‘젠더불쾌증’임을 밝히는 청소년이나 젠더확정 치료를 받았다가 그 결정을 후회하는 청년 혹은 그들의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과잉 반응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편안하게 대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게 급선무다. 함께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면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고민을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 청소년들은 젠더불쾌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정신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기억해야 한다.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거나 그렇게 되고 싶다고 표현할 때에는 이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들에게 직접 질문해 보는 게 중요하다. “나를 믿고 이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네가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때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대화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여성성이 강한 남성, 남성성이 강한 여성이 있지만 그들의 신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시작된 젠더불쾌증 사례의 12~24%만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불쾌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린 시절 상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심리 혹은 정신과 상담이 스스로 느끼는 성별정체성에 신체를 맞추기 위해 의학적 인 변형을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인도적인 치료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믿을 만한 정신과 및 내분비내과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목회자와 상담가들에게 연락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여성성이 강한 남자아이 혹은 남성성이 강한 여자아이들이 생물학적 성에 반대되는 젠더를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성별을 확정하는 치료를 고민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은 개개인을 자기 형상을 따라 독특하게 창조하셨으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 독특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과 그것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주어진 성을 부정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인하는 것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젠더이념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비틀고 왜곡해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탄의 유혹과 같다.”

둘째, ‘젠더확정 치료’로 호르몬요법이나 전환수술을 먼저 시도했었던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은 더는 이러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에서도 ‘탈 전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탈 전환자는 젠더확정 치료를 통해 성전환을 시도했다가 이를 후회하고 자신의 원래의 성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수많은 탈 전환자들이 전환치료를 추천했던 의료기관과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판단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치료를 권했고,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자살할 수 있다는 오폭으로 사실상 치료를 강권했다는 점 때문에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전문학적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넷째, 반대 성호르몬 투여는 원래의 성징은 억제하고, 반대 성의 성징을 어느 정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깨는 행위이며 그 결과로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등 대사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장기간 계속하기 힘들다. 건강 문제로 호르몬을 중단하면 대부분 성징은 원상 복구하지만, 성 기능이나 생식능력 같이 회복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다섯째, 성전환수술은 회복 불가능하게 우리 몸을 훼손하는 수술임을 설명할 수 있다. 수술을 통해 반대 성의 생식기능이나 성기능을 결코 얻을 수 없으며 겉모양만 변경할 뿐이다. 모든 성형수술이 그렇듯이 자신이 원하는 외모에 더 가까이 가려는 욕심에 수술을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성전환은 불가능함을 알려줘야 한다.

성전환을 원하는 청소년에게 즉시 젠더확정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사실인가? 학술적 증거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젠더확정 치료를 불허할 때 아이들의 자살 위험에 관한 이야기는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젠더활동가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장치 중 하나다. 연구결과는 젠더확정 치료를 받은 이후 오히려 자살 위험이 훨씬 증가함을 보여준다. 젠더불쾌증의 배후에는 어린 시절 다양한 상처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것을 해결하면 젠더혼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성전환을 원하는 자녀의 부모님들은 그 치료를 권하는 의사에게 이 글의 내용을 조목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대부분 동물도 암수를 구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과학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성염색체가 분명히 그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젠더이념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비틀고 왜곡해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탄의 유혹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통찰할 분별력과 하나님의 진신감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전쟁과 평화

하선희 집사
(강남E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는 이 유명한 찬양 구절은 윌 듀런트의 말 “3421년의 인류 역사 중 전쟁을 겪지 않은 해가 고작 258년도 안 된다”는 인류의 현실을 반영한다. 매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 소식을 접하거나 휴전국에서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라”(롬 12:17~21)는 말씀과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라”(롬 13:1~7)는 말씀이 일견 상충되어 보인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는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이 반드시 희생된다는 현실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존 스토틀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로마서〉12장은 개인이 사적 보복을 하지 말고 분노와 원수 갚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라는 의미이며, 13장은 국가나 공적 권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역할이다.”

오늘날 악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하나가 국가를 통한 것이다. 철학자 아서 홉즈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마 5:39)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맥락이지 정의의 추구는 사적 보복이 아니고, 전쟁 등을 통해 국가를 방어하고 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쟁은 이처럼 악이 윤행하는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필요악이다. 관건은 전쟁이 악한가가 아니라 전쟁이 불가피할 때 그 악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구약의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체계화해서 ‘의로운 전쟁’이라는 전통을 형성했다. 여기에는 정당한 근거(방어), 올바른 의도(정의로운 평화의 확보), 최후의 수단, 공식적 선포(합법적 권위에 의한 최후통첩에 따른 개시), 수단의 통제(전쟁이 가하는 폭력은 전쟁이 바로잡고자 하는 폭력보다 적을 것), 비전투원 배제(민간인 보호), (승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라는 일곱 가지 판단 기준이 포함된다.

모든 나라가 이 전통에 따른다면 전쟁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핵·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테러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의로운 전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존 스토틀은 무죄한 죄를 흘리지 않도록 노인, 어린이 같은 비전투원을 확실히 구별하고, 핵무기 같은 무차별적 무기는 극도로 긴급하고 더 심한 악을 초래할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핵 보유는 그 목적이 사용이 아니라 평화의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는 더 큰 악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의 자유를 잃지 않는 선택을 할 것도 강조한다. 이 무거운 주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을 일깨워 준다.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테러 집단에게도 평화의 좋은 소식을 알리고, 핵 문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평화의 공동체로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 주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목소리를 내고, 공적 토론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권면한다.

톨킨의 〈두 개의 탑〉에서 그만 싸움을 포기하자는 말에 메리는 “숲이 불타면 이 세상에서 한때 위대하고 좋았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라며 반박한다. 우리가 자유와 정의를 통해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면 더는 정의롭게 행동할 자유와 평가가 없는 날이 올 것이다. C.S. 루이스는 “전쟁은 언제나 더 큰 악”이라는 신조는 죽음과 고통이 가장 큰 악이라는 유물론적 윤리를 함축한 것이며... 인간이 하는 일이 고통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제한된 목표를 위해 조용히 힘쓴 사람들”이라고 했다. 비록 세상에는 환난과 전쟁이 있으나 세상을 이기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임무를 다하며(딤후 4:5), 지금 이곳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라고 부르신 소명에 충성하며 담대히 살아갈 소망이 있다.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엄마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동역자!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울 수 있다.

옛날에는 아이들 곁에 할머니, 이모, 고모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오로지 엄마에게 육아가 맡겨진다. 친척들과는 뽕뽕이 흩어져 살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이다. 날마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는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 거기에 날로 치열해지는 교육열까

지 가세하다보니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다. 너도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것을 자식 자랑이라 떠들어대니 경제적 후원을 하지 못할까 봐 조바심을 내기도 한다.

나는 엄마들에게 “제발 10년 후를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엄마들이 하는 걱정 대부분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돌쟁이 아기를 안고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라고 걱정한다. 유치원생 아이를 돌보며 “좋은 대학에 가야 할 텐데 어찌죠?”라고 근심한다. 그 걱정과 근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장 눈앞에 주어진 행복과 즐거움을 모두 놓치고 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지금 무엇인가

의외로 많은 엄마들이 ‘엄마’라는 자리를 버겁게 생각한다. 그들에게 자녀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엄마가 감당해야 할 육아의 몫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연 이 아이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잘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엄마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생활고를 잊었다. 아이들은 팍팍한 생활에 웃음을 가져다주는 보물이자 재산이었다. 물론 요즘 엄마들이 느끼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은 옛날 엄마들보다 무거

할 수 있다는 게 엄마들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엄마라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엄마라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엄마들에게 주셨다.

엄마는 아이를 낳아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베풀기도 한다. 때때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이가 자람과 동시에 엄마도 성숙하고 발전한다.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수십억 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엄마의 배를 통해 지금도 소중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갈수록 출산을 꺼린다.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자녀는 삶의 성장 동력이며 희망 동력

“
엄마들이여, 아이를 바라보며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자.
지금 이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란다.
자녀 양육의 귀한 특권과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다. 그러므로 엄마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동역자다. 엄마라는 자리는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리다.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열국의 어마들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생명을 보호하고 키우는 그 위대한 일에 나와 당신이 쓰임 받고 있다. 내가 낳아 키우는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이룰 하나님의 일꾼이다.

엄마들이여, 아이를 바라보며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자. 지금 이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란다. 자녀 양육의 귀한 특권과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48. 자전거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6월 20~21일 본문 ‘행 2:1~7’, ‘행 2:14~21’

1. 오순절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이것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큰소리 ② 동물소리 ③ 방언 ④ 한국말

2.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자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놀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읽으며 빈칸을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은 ()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을 보고, 너희 나이든 사람들은 ()을 꿀 것이다. (중략)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을 부르는 사람은 ()을 얻을 것이다’”(행 2:14~21).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창조탐험대 참가 소감

“또 참여하고 싶어요!”

차세대 창조탐험대에 참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대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좋았고, 그걸 직접 보게 되어서 더 좋았어요. 공룡이 사람들과 함께 지냈고, 초식동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홍수 이후 빙하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육이 살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

었어요.

소년3부 친구들과 6학년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새로 만난 친구, 동생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감사해요. 일정이 끝나고 버스에 탔을 때 비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아 감사했어요. 창조탐험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희

생과 하나님의 도우심,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란 걸 알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창조탐험대를 갈 수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고다인 학생
(도곡 품땅 소년부)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어요”

차세대 창조탐험대에서 노아 홍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심판과 창조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워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알게 되었어요. 만족하고 즐겁고 모든 게 좋았어요.

마이산을 더 많이 올라가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놀 시간이 부족해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못 보낸 것은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자유시간을 늘려주고, 캠프 기간을 2박 3일로 늘려주시면 더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축구 같은 활동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캠프를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과 스태프들, 이 캠프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하준 학생
(서빙고 품땅 소년부)

2023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겠습니다!”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2,205명 참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백 마리아들의 고백과 외침이 온누리교회를 수놓았다. 2023 마리아행전이 ‘광야의 힘’을 주제로 지난 6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막 올랐다. 이번 마리아행전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겠다는 결단의 시간이었다.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에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이한영 부총장(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했다. 21일(수)에는 유기성 목사가 ‘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유 목사는 “다윗이 거친 광야 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때문”이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더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목)에는 이한영 부총장이 ‘광야에서의 식별’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총장은 “광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유지와 사역지, 전례와 예배, 욕구와 불만을 식별하라고 가르친

다”면서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행복한 광야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23일(금)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광야에서 부르짖다’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숨김없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에 참가한 마리아들의 고백과 다짐도 뜨거웠다.

김민지 성도(관악금천공동체)는 “이번 마리아행전은 돈, 명예 등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고, 심혜숙 권사(영등포구로공동체)는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 여정에서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마리아들의 고백 그리고 다짐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여성”

“요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세상이 피폐하고 끔찍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들이,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자체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마리아행전을 계기로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장들을 일깨우는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명호 권사
(이수공동체)

“예수님을 의지하는 육아”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번 마리아행전에 아기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육아가 저에게는 광야의 과정임을 이번 마리아행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육아를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보는 일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육아를 정복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육아는 목적지로 가는 광야 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여기면 힘든 육아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문순영 자매
(일본어예배부)

“우리도 여성들을 위한 집회 소망”

“이번 마리아행전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료 목사님, 사역자님과 함께 온누리교회 마리아행전에 초대받았는데 정말 행복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집회가 처음인데, 평일인데도 수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마리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보내신 사역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온누리교회처럼 우리도 선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 사회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마리아행전 같은 여성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3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메리 목사
(인도네시아 HKI교단)

◎ 6월 21일 수요일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라

시편 27:1~14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눈이 열려 광야를 보게 되는 일이 우리를 힘
들게 합니다. 광야인 줄 몰랐는데 ‘내 삶에 광
야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안식년을 이스라엘에서 보냈는
데 그때 요르단 광야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적
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광야는 달랐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예수
님이 저에게 “너는 나만 의지하고 이 광야에
서 살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
다. 그때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어간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삶 자체가 불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24시간 예수님만 바라
보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
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예
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산 정상을 정복하
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광
야를 지나는 삶은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
닙니다. 목적지에 도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광야를 지나는 지혜가 필요합니
다.

다윗은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 전체

가 산을 정복한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도 나를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
켜주셨다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
은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당당함이 있었습니
다.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
이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고 계신 듯한 상황과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
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꼭 붙
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게 있습
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
다고 했습니다. 그 소원은 “한평생 예수님의

집에 살면서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
입니다.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서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의 평소 갈망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완전한 응답은 예
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초
점도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성
도는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광
야가 다양하지만, 어떤 광야든 지나는 길이 있
습니다. 길만 찾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
다.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광야는 절대 두려
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6월 22일 목요일

광야에서의 식별

출애굽기 19:5~6, 아모스 5:25

이한영 부총장(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식별하고
싶습니다. 소유지와 사역지, 전례와 예배, 욕구
와 불만입니다.

첫째, 우리가 광야에서 식별할 것은 소유지
와 사역지입니다. 성경의 광야는 우리에게 인
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소유지인지, 사역지인
지를 식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
는 여정이 소유지를 향함니까? 사역지를 향함
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즉, 예배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알려주
셨습니다(출 19:5-6).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 하나님
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있
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고, 피조물의 생
명과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여기고, 땅을 더럽
히면서 복된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고난과 죽음의 땅으로 변질했습니다. 하나님
의 절대 소유권에 도전하고 반항하면 복된 땅
이 음란, 방탕, 마약, 죽음의 공동체로 몰락하
고, 끝내는 자기파멸에 이릅니다.

둘째, 전례와 예배입니다. 전례는 예배의식
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전례를 반
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은 적
이 없다고 하십니다(암 5:25). 그들이 광야에
서 드린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본질이 상
실된 외적인 전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
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한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십
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소유를 이루신 게 아닙니다. 사역을 이루
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역기능적이고, 파
멸적인 자아의식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셋째, 광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구와 불만
을 식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
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구가 소유자이자 주권자
인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할 때, 잘못 채워질
때, 잘못 추구할 때 ‘불만’ 이 나타납니다. 우리

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만
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욕구는 불평
을 낳고, 불평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폭행을
낳고, 폭행은 파멸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불평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죄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
음의 불만이 어느덧 불평으로 발화하고, 불평
이 축적돼 폭발하면 폭행이 되고, 끝내 파멸합
니다.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
에 대한 탐욕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광야 같은 나그네 일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는 늘 소유에 목말라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
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
회, 열방이 사역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
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
가는 행복한 광야 길을 가십시오.

◎ 6월 23일 금요일

광야에서 부르짖다

시편 142:1~7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다윗을 왕국으로 보내시기 전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
에 숨어있는 악함을 제거하기를 원하셨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
을 시로 남긴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이라도 하나님
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
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나
머지 하나님께 불평을 숨기기도 합니다. 또 “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도 합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음
을 부르짖고 쏟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
하십니다. 우리의 원통함과 어려움, 불평을 하
나도 숨김없이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쓰지 않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고통 속
에서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표현하고 기도
하면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
나님 앞에서 쏟아내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
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게 됩니다. 영
적으로 예민해질수록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실
망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
니다.

다윗도 위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실망합
니다. 불신에서 나온 실망이나 원망이 아닙니
다.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겪는 영적
인 실망입니다. 이 실망감이 하나님께로 향하
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은 실망
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망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옥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환경과 상황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
니다. 가정이나 일터,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
듭,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감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피
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서 반드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감옥은 부르
짖는 기도로운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떠한 것도 숨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
신다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혼의 감옥 문이 열리
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옥이 깨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이 열리
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
다.

교회가 사라진다! 1. 차세대 2. 청장년 3. 중년 4. 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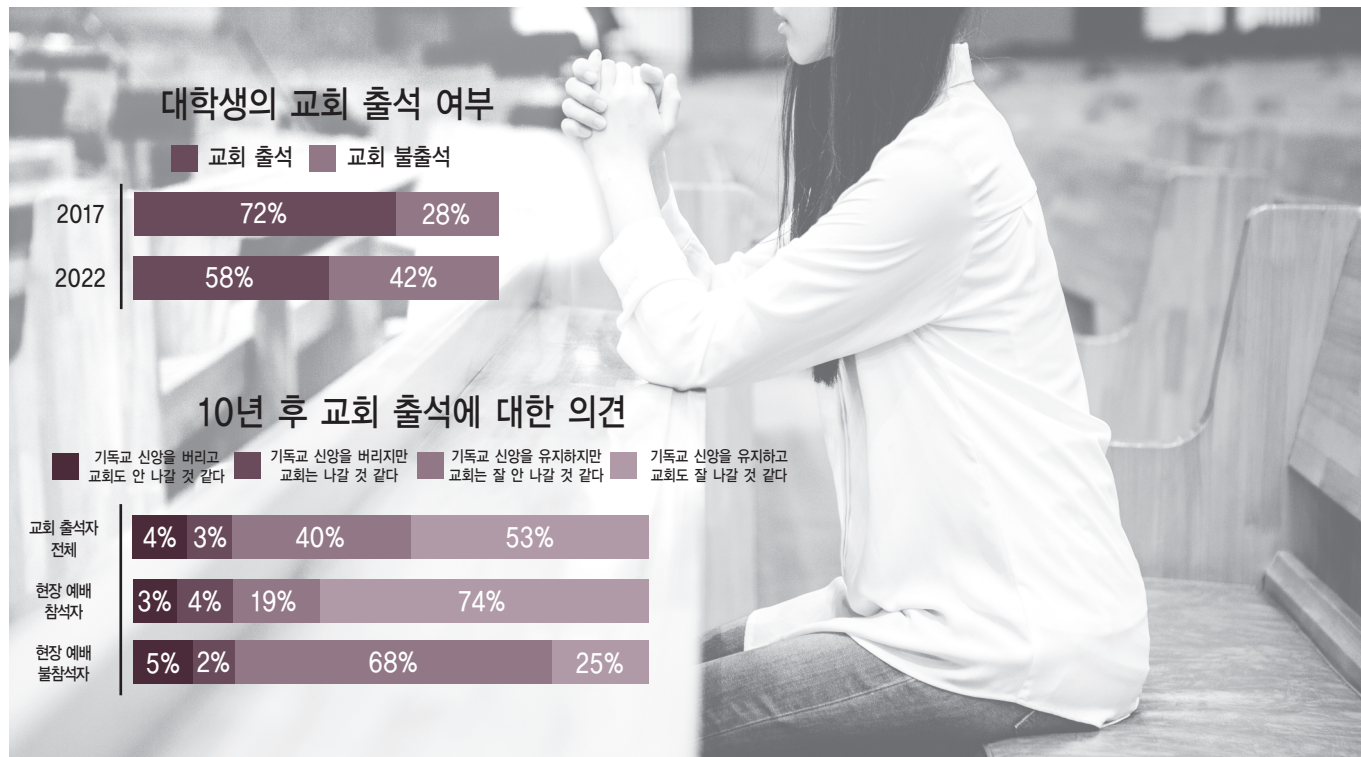
교회에서 청장년이 사라진다!

신앙의 멘토, 목회적 지도와 돌봄 필요

이 시대 교회가 위기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위기는 늘 있었지만, 이 시대 교회는 존재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이다. 말 그대로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요즘 정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교회는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온누리신문에서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고, 적절하고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교회가 사라진다’를 주제로 세대별로 다르게 느끼는 이 시대 교회의 위기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는 ‘교회에서 청장년이 사라진다’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청장년은 청년(靑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사람들)과 장년(壯年, 일생에서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사람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20대부터 40대를 통칭한다.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다. 그런데 청장년 시기에 온갖 어려움이 집중되어 있다. 취업과 노동, 연애와 결혼, 자녀 양육 등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청장년 시기에 한꺼번에 경험한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이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의 사람들이다.

청장년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청장년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세대다. 그들이 빠지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장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신앙의 멘토와 목회적 지도와 돌봄이 필요하다.

청장년이 교회를 떠나는 네 가지 이유

청장년의 교회 이탈 현상이 심상치 않다.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일반 대학생(1,000명) 및 개신교 대학생(345명)을 대상으로 ‘2022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개신교 대학생들에게 교회 출석 여부를 물었더니 10명 중 4명(42%)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비율이 2017년(28%) 조사보다 14%나 늘었다.

3040세대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전국

만 30~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3040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를 했다.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 모두 드리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33%나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10년 뒤 교회 출석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44%가 교회 이탈 의향(기독교 신앙 버리고 교회 이탈 4%,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면서 교회 이탈 40%)을 보였다. 더이상 청장년에게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복음화협의회 ‘2022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대학생 중에서 33%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응답했다.

3040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3040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34%)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3040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31%)였고, ‘구원을 위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신앙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둘째, 세계관 및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을 조사했는데, 개신교 대학생 중에서 90%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는 인식에 동의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맘몬을 숭배하는 사회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성에 대한 가치관도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개신교 대학생들의 혼전 성관계 인식과 성관계 경험을 물었더니, 혼전 성관

계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응답이 48%나 됐다. 전체 대학생 응답률(5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신교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률도 39%로 전체 대학생의 경험률 43%와 비슷했다.

개신교 대학생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 대학생 중에서 “나는 성소수자(동성애+양성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10%나 됐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40%를 차지했다. 교회가 이 시대 청장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셋째, 일상의 스트레스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장년 세대는 가장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세대다. 가정과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다. 높은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신앙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040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사 노동 및 육아 스트레스’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 ‘직장 및 사회생활 스트레스’는 37%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일상의 스트레스가 신앙에 관한 관심을 약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장기화하면 결국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넷째, 신앙적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다. ‘3040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 결과, 3040세대 기독교인 10명 중 4명이 “신앙적 회의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앙적 회의를 느끼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37%)가 가장 많았다.

20대 청년들의 대답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2022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 따라

면, 교회 출석 대학생 42%가 “청년들에게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다”(34%), “목회자와 교인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3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청장년들이 신앙적 회의를 경험하는 이유 중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윤리 문제가 많았다. 교회가 청장년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선배가 되어줘야 한다.

청장년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청장년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청장년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는 신앙 멘토들도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 온누리 세계관학교를 중심으로 해마다 기독교 세계관 및 가치관을 교육하는 양육 프로그램과 집회를 열고 있다. 대학청년부 멘토들도 발 벗고 나서서 청장년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삶의 문제, 신앙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의 선배들에게 언제든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다. 온누리신문에서 연재하는 청장년의 고민에 목회자와 멘토들이 답변하는 ‘리때는 말이야’, ‘목사님 질문있습니다’ 코너를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청장년은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다. 청장년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청장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회가 힘들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장년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정착하라!”

“갈수록 세상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요? 크리스천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다소 의아하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일반적인 기대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바벨론을 탈출하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잘 정착하라고 하신다. 무슨 의미일까? 바벨론 제국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첫째, 인내하며 정착하라!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렘 29:5).

하나님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나그네가 되기

를 바라지 않으셨다. 적극적으로 머물고 원래 살던 사람들처럼 정착하라는 것이다. ‘정원을 만들고’에서 ‘만들다’는 단어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에덴동산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다. 그곳에서 열심히 정착해 에덴동산을 창조하듯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새 창조의 삶을 일구라는 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정착은 다소 거리가 멀다. 쉽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 공동체나 직장에서 상황에 따라 쉽게 이동한다. 물론 자신의 자야를 실현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가 발휘되는 곳인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실현되는 곳인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깊이 정착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정착해서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일구려야 한다.

둘째, 결혼하고 출산하라! 단순히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다. 결혼과 출산은 축복과 기쁨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합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 적대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들을 대적하고 벗어날 방안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읍을 위한 기도였다. 오늘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힘든 시대에서 적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세상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한다. 또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한다. 하지만 하나

님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심지어 적대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 대적자들의 행동과 태도가 옳기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 다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변화하는 상대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강력한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정말 기도하기 힘든 상대, 조직을 위해 기도할 때 나타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절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오직 평안, 미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바벨론 제국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전하고 계신다.



송동주 전도사
(J4U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같은 말 다른 이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평소 이해했던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인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 숙달되었기에 고민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입견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폭넓고 다양하게 의사소통하며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면 큰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같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더라도 때로 전달자의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특히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짧을수록 의사소통의 불일치성이 높아진다. 함께 사는 부부도 소통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크고 작은 관계적 충돌을 경험한다. 배우자의 말과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할 때 서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불통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서 맞춰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에서 오해와 소통의 불일치가 작은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다. 그때는 다시 이야기하고 자신의 관점과 이해의 틀을 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소통과 이해의 불일치가 서로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다면 관계에 큰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불편하고 힘든 경험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더없이 소원해진다. 서로의 자존감을 찌를 정도의 소통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시간, 인내, 포용력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소통 불

일치가 일어날 때 용기 내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은 왜곡된 심리, 정서체계를 다시 조정하는 힘이 된다.

부부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당신 왜 그랬어?”라는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보자.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말하는 사람은 이 말을 비난이 아니라 단순히 궁금해서 했다고 할 수 있다. 표면적인 말 이면에 담겨 있는 뜻을 다시 물어보지 않고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당신 왜 그랬어?”라는 말을 들 때마다 화가 나는 배우자가 있다. 이 사람은 “당신 왜 그랬어?”라

을 비난하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물론 서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부부는 이 말을 자신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다. “당신 왜 그랬어?”와 비슷한 느낌의 말을 했을 때도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

배우자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믿어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상대방의 불신의 말 한마디에 섭섭함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고 책망했던 대상이 관계의 중요한 위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는 말을 자신을 향한 비난과 책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말하는 배우자는 비난이나 책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말을 들 때마다 분노가 일어난다. 배우자가 자신을 비난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무시한다고 느낀다.

“당신 왜 그랬어?”는 단순히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듣는 그 사람은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해!”, “당신을 무시해!”, “당신이 하는 말은 늘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당신 왜 그랬어?”라는 말만 나오면 말다툼을 한다.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도 왜 자신

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마음의 왜곡과 뒤틀린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부모에게 “너는 왜 그랬니?”라는 책망의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란 사람에게 추구하는 것 같은 말은 충분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믿어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늘 긴장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이다.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믿는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서로 충돌과 의사

소통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한다. “나 궁금한데 설명해줄 수 있어요?” 같은 문장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부부는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일치와 불일치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며 나와 배우자가 성장할 뿐 아니라 치유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격려와 믿어주는 말이 있다면 “당신 왜 그랬어?”라는 말을 들어도 무뎠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래 이 말은 나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다”, “궁금해서 단순하게 물어보는 말이다”, “과거처럼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무시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신념과 이해의 틀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부부 대화에서 계속 걸리는 문장이 있다면 서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부부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단어 혹은 문장 뒤에 어떤 과거 역사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부부는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관계여야 한다(약 5:16).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장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눅 7:32)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눅 7:32).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앞 절(눅 7:31)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라며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은 흔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 오늘날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 혹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고, 믿음이 없거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반응이 없는지를 안타까워하며 분노한다. 그러나 그 해석은 틀렸다. 이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해서 오용한 사례다.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과 ‘울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당시 유대인들이나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곡해도 울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세대가 비난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흔히 예수가 피리를 불고 곡하라고 했는데, 믿음 없는 당시 세대가 춤추지 않고 울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한다. 하지만 예수가 비난하는 대상은 장터에 앉아 자신들은 편안하게 피리를 불면서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추지 않는다고 비난

하는 아이들을 말씀한다.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면서 자신들은 편한 역할인 피리를 불고, 곡하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 상대 아이들이 춤을 추고 가슴을 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당시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 비유 말씀이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즐거워하는데 세례 요한이 금식한다는 이유로 귀신 들렸다고 그를 비난했다. 그들은 또한 죄인들과 엄격한 격리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듣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포도주를 마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했다. 이 말씀에서 예수는 자신과 세례 요한을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 반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구절이다. 피리를 부는 사람은 악한 자이고, 피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외식(外飾;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가르치기보다 내가 먼저 말씀의 모범을 보이면 되는 것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핍박과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

6월 26일~7월 2일
〈사도행전〉 4:1~6:15



목상포인트 1:

세상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한다(행 4:12). 위협과 경고에도 사람들에게 순종하

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리라고 선포한 사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어떠한지 목상하자.

▶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관리들의 심문을 받는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 선포하며, 어떤 경고와 위협에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관리들은 백성을 의식해 사도들을 위협만 하고 석방한다.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이 되어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나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이후 성령을 속이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춘 일로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목상포인트 2: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우신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과 능욕(모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사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증거다. 핍박과 능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목상하자.

▶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를 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다. 밤에 주님의 사자(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키니 사도들은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종교지도자들은 옥문이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는 보고를 받는다. 다시 잡혀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선포한다. 종교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 존경받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중재로 풀려난다.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목상포인트 3: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서로 다름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때 교회가 부흥한다. 초대교회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신앙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목상하자.

▶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면서 구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열두 사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일곱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 이들에게 구제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 하나님 말씀이 퍼져 나가고 교회는 더욱 부흥한다. 일곱 집사 중 한 명인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기사와 표적을 행했더니 자유민들(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그와 논쟁한다. 거짓 증인들은 공회 앞에서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증언하지만, 공회원 앞에 선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하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 사도들은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구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과 탐심으로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 물질에 대한 나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탐욕과 거짓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히 거절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조언을 통해 사도들을 위기에서 보호하셨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자.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위협 앞에서도 그 표정이 천사와 같았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혹은 사람) 앞에 어떠한 표정과 언행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동생을 위해서!

공황장애와 알코올 중독에 빠진 동생(35세, 남)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밝히지 못해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 동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생은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앞에 나서는 걸 즐기지는 않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고, 최근 공황발작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술이나 담배는 입에도 안 댔는데 요새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알아주지 못하고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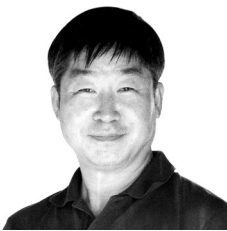
동생이 술을 마시지 않고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동생이 언제 공황발작이 또 올지 모른다며 두려워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보호해주시고, 공황발작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동생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전처럼 즐겁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주막에서 시작된 ‘청주 신대교회’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충북에서 그리고 청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는 외부 도움 없이 설립된 ‘청주 신대교회’다. 충북 청주시 신대리는 미호천과 무심천이 합류하는 강변에 자리한 마을이다.

때는 1900년, 이 지역 선비이자 농민 오천보와 문성심은 농한기인 겨울이 되면 서울을 오가며 행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경기도 죽산에 들렀다가 뚝방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던 사경회에 참석했다. 사경회는 성경을 읽으면서 각 구절에 담긴 뜻을 풀이하는 집회다. 책을 읽으면서 뜻을 풀이하는 방식은 유학자들이 책을 읽는 방법과 비슷했다. 비록 농사를 지으며 행상을 하고 있었지만, 양반으로 살아왔기에 생소한 모습은 아니었다.

성리학에서는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를 ‘이(理)’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설정했는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라 한 것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 성경은 ‘생성-존재-소멸’의 이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풀이하는 과정에 믿음이 생

겼고, 성리학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근본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

그들은 신대리로 돌아와 오천보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다. 성경공부와 전도를 병행했다. 모임을 하던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으로 자리를 옮기자”며 나무 근처 주막을 빌려 예배를 시작했다. 광목에 십자가를 그려서 걸었다.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였고, 주막 주인은 술손님이 많아진다고 좋아했다. 이때를 충북 최초 교회이자 신대교회의 시작일로 삼는데, 1900년 10월 3일이다. 그들은 아직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랬기에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셨고, 뱃노래에 성경 내용을 개사해 찬송을 불렀다.

1900년 경기 남부 선교를 담당해 순회하고 있던 밀러 목사가 청주 신대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식을 접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힘껏 전도해도 열매 하나를 얻기 어려운데,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 주막으로 갔다. 예배 장소를 빌려준 주모를 보고 미소 지으며 등을 두드려 주니까 주모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 그런데 밀러 목사가 설교하면서 “술을

먹으면 집안 망하고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자 주모는 화가 나서 빗자루를 휘둘러 쫓아냈다.

밀러 목사는 이찬규를 보내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교인들을 지도하게 했다. 교인들은 주막 대신 초가집을 마련하고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이때가 1901년이였다. 밀러 목사는 신대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곳 교인들이 지난 11개월 보여준 진보가 경기 남부 사람들이 6년 동안 이룬 것보다 앞섰다. 이 지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이들이 수도권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고 정직하며, (중략) 그들은 자체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였고 거의 매일 저녁 모여 기도하고, 공부하거나 ‘그리스도신문’을 읽는다.”

신대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꽃은 충북지역으로 확산했다. 오천보의 부인인 이춘성은 밀러 목사를 도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춘성은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은사가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매우 당차으며, 불꽃 튀는 눈초리로 호령하면 귀신이 모두 도망쳤다. 선교사들은 이춘성을 ‘전도부인(The Bible woman)’이라 불렀다. 일제강점기 청주지역 선교 보고에서 “뛰어난 전도부인”으로 언급되는 ‘오씨 부인(Mrs. Oh)’이 이춘성이다. 그녀는 교인들과 가족들에게



청주 신대교회 전경.

는 매우 자상한 여인이었다.

교회가 들어서자 마을이 변화되었다. 교인들은 ‘청서학교’를 설립해 신식교육을 했다. 박태영, 오춘석, 장기대, 방준일 등은 평양 숭실에서 공부하고 인재가 되었다. 신대리로 시집온 여자들은 의례 한글 정도는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 교회가 들어서자 마을이 개화되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였다.

두란노 신간

공적 복음과 복음의 능력



<꺾이지 않는 사명>
류영모 저 | 두란노 | 12,000원

보여줘야 한다고, 교회가 세상에서 생명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복음의 공적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좋겠다. 세상을 물들이는 공적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만’
welove 작사, 작곡

지난 5월 Welove(위러브)가 앨범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발표했다. Welove는 찬양 집회와 앨범 등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를 선물하는 사역팀이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의류, 굿즈 등으로도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앨범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을 뚫고’, ‘어둔 날 다 지나고’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룹이다.

찬양 ‘오직 주의 은혜만’은 본래 나의 것은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해 살게 하셨네’라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바쁘게 흘러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도 하게 한다.

‘오직 주의 은혜만’은 Welove 대표 박은총이 작사, 작곡했다. 편곡과 건반은 김채림, 보컬은 구교석, 디자인은 배영은 등이 했다.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앨범 소개글처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찬양 속 은혜를 깊이 누리면 좋겠다.



찬양 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통편’

1. 우리나라 자동차 이용 현황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승용차)는 1천 6백만 대로써 성인 10명 중 4명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승용차 중에서 관용,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는 한 대당 연평균 11,895km를 주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간 약 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전체 차량 휘발유 사용으로 가정).
2. 실천 방안
 -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주 1회): CO₂ 저감량(연간) 25.1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3.8그루
 -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주 1회): CO₂ 저감량(연간) 469.4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71.1그루
 -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 CO₂ 저감량(연간) 26.3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4그루
 - 경제속도(60~80km/h) 준수하기(20% 실천): CO₂ 저감량(연간) 65.9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10그루
 - 불필요한 짐 싣고 다니지 않기: CO₂ 저감량(연간) 56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8.5그루

장로칼럼

권사칼럼

철원으로 떠난 종강예배

오겐끼데스까!(おげんきですか)



원우현 장로
(서빙고공동체)

“2023년 1학기 서빙고공동체 종강예배는 철원 제일감리교회에서 드립니다.” 이메일에 눈이 번쩍 뜨였다. <남은 건 사랑뿐일세>라는 책을 99세에 출간하여 화제를 남기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모친 황숙희 권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불현듯 몰려왔기 때문이다. 철원은 모친께서 1920년 9월 15일 출생하신 곳이다. 그리고 외조부가 철원회사 사장을 지내시던 1946년경에는 우리 가족들이 전쟁 중 전부 서울에서 철원으로 소개(疏開)되어 갔던 곳이다. 당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큰 빵을 든 로스케 소련 병사들의 모습과 공습경보가 울리면 두려움에 떨면서 물이 질척한 방공호로 부리나케 피신하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소달구지에 철철 넘치게 짐을 싣고 38선을 넘다가 소련인 초소 검문에 걸려 결국 오발로 부친이 팔을 다치신 기억도 난다. 여러 기억이 얹히고설켜지면서 당장이라도 철원으로 달려가고픈 마음이 생겼다.

2023년 6월 17일 아침, 철원으로 가는 단체 버스에 올랐다. 수학여행 가는 듯한 기분도 느끼면서 모처럼 순 식구들과 즐거운 인사를 나눴다. 철원제일교회에 도착해서 교회당 내부와 기념관을 살펴보니 모든 게 그런대로 잘 정돈되어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예배 장소를 이동했을 뿐이지 실은 서빙고공동체 종강예배다. 안광식 총무의 찬양 인도와 신기섭 목사님의 말씀이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다.

예배는 찬송으로 시작했다. 바로 DMZ 건너 평양 땅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이란 가사를 ‘평양’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북한 기독교인

의 고난과 핍박에서 자유를 바라는 기도를 담았다. “예루살렘(평양)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신기섭 목사님의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가 서빙고공동체 식구들을 집중시켰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고난 받는 자를 기억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은 예수님 제자의 기본이며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 안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상욱 철원제일교회 담임목사님이 들려주신 특별 강론에서 철원 특유의 선교 역사와 교회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하에서 신사 참배로 1944년 4월 21일 순교하시기 2년 전에 철원에서 강종근 목사님이 38세에 신사 참배 반대로는 첫 순교자가 되신 내력을 설명하셨다.

강종근 목사님은 34세에 철원제일교회에 파송 받으셔서 교인 수 600여 명인 교회를 마다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실형을 살면서 모친 고문 끝에 “나는 기쁘다”는 말을 마지막 면회를 온 사모님에게 남기고 1942년 6월 3일 순교하셨다고 했다.

노동당사는 수리 중이라 그냥 지나갔고, 백마고지 기념관에서 중공군 인해전술로 대한민국 군인 3,416명 사망, 중공군 포로 543명, 부상자 포함 14,389명이 전사한 격전지를 관람했다. 그 후 땡볕에 드높은 파란 하늘을 위로 보고 은하수 다리를 오가면서 한탄강 초여름의 절경을 내려다보았다. 나도 모르게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다. 최전방에서 나는 북한에서 피박 받는 북한 신도들이 더욱 가슴 아팠다. 종강이 없는 오늘의 철원 탐방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서정원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동해를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건너편에 있는 일본의 야마가타현을 지도에서 발견한다. 일본 국토의 기승 부분이면서 바다에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현이다. 다시 바닷가에 위치한 사카다시를 지도에서 찾는다.

바로 이 사카다시에서 20여 년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와타나베 아이씨(愛さん)’를 만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2021년 야마가타 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으로 사카다시에 있는 교회에서 온누리교회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의뢰했다. 사카다교회 성도 20여 명이 신청했고, 아이상은 그분들 중 한 사람이다. 아이상의 한국명은 최선애로 20여 년 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다.

최선애 자매와의 만남은 일대일제자양육 ‘안녕하세요’를 시작으로 4차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 갔다. 최선애 자매는 매 과마다 가슴 아리는 사연을 나눴는데 결혼 전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아픈 굴곡들은 이미 주님께 넘겨져서 평탄하게 되어 오히려 강인한 모습이었다.

최선애 자매가 일본에서 아이상으로 살면서 겪은 어려움은 언어의 불편함보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다. 아이상이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매일 자나 깨나 예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며 사는 동안 주님은 최선애 자매의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셨으며 ‘아미’와 ‘에미’ 두 딸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고 계신다. 최선애 자매가 이 모든 것을 은혜라 여기며 감사하는 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까를 상상하니 그 안타까움에 내 입술에서 “주여” 소리

가 절로 나온다. 그럼에도 아이상의 일상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16주 동안 이어진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하나님은 최선애 자매를 위로하시며 잘살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다. 만나는 시간마다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지만, 원망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를 토해내는 구원의 시간이었다. 이 만남의 과정이 다음 일대일제자양육을 원하는 또 다른 동반자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최선애 자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의 집 담장을 넘어 더 넓어지리라는 믿음이 더해진다.

<민수기> 6장의 아론의 기도로 최선애 자매를 마음껏 축복하며 힘을 더해 주고 싶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오는 8월, 사카다교회에서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최선애 자매와의 만남을 떠올리니 벌써 기대와 떨림이 있다. 그동안 온라인(Zoom)으로만 만났기에 실제 얼굴을 보고 대화하게 될 상황이 그려지면서 살짝 긴장도 된다. 고국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내 마음은 멀리 파송 받은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 심정이다. 그렇다. 누가 뭐래도 최선애 자매의 지난 20여 년은 선교하는 삶이었다.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품고, 그 땅에 정착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이 글을 마치며 다시 지도를 본다. 내가 사는 서울에서 출발해 오른쪽으로 태백산을 넘어 동해로 나아가 닿는 일본 땅에 최선애 자매가 살고 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아이상도 만나고 있다. 최선애, 아이상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 소리 높여 인사를 건넨다.

“오겐끼데스까!(おげんきですか)”

신앙에세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라!



신대중 전도사
(부천온누리교회 차세대)

5년 전 2018년 5월 12일, 세차게 오는 비를 맞으며 우리 부부가 야외 결혼식을 올렸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많은 분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잘 마쳤다. 5년이 지난 지금은 5살, 3살 두 남매와 올해 12월 태어날 막내를 기다리며 정말 많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아내와는 2017년 친한 동생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30대 초반 또래 청년들처럼 나에게 결혼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다. 당장 나에게 벌어질 일이 아니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면 만날수록 가정을 세

우고 싶어졌다. 비록 교제 기간이 짧았지만, 함께 기도하며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 모두 결혼식을 준비하기에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준비된 게 없었기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고, 결혼 비용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그때 아내가 내게 했던 말 한마디 덕분에 용기 내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루를 위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0년을 바라보는 결혼을 준비하자.” 아내의 이 말이 내 온몸의 신경을 깨우는 것 같았다. 안될 것만 같았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어놓는 한마디였다.

우리는 결혼에 관련된 책을 함께 읽으며 결혼식 준비뿐만 아니라 함께 살게 될 60년을 준비하는 결혼을 준비했다. 결혼식은 재정의 한

계로 인해 모든 것을 셀프로 준비해야 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준비하는 결혼식이었지만 나름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 이 경험 이후에 나는 청년들이 결혼 관련 고민을 상담했을 때면 늘 하루를 위한 결혼식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결혼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결혼은 인생의 대사(大事)이다.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결혼식이 아니라 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는 일이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수많은 부정적이고, 불균형적인 부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을 결혼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세우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루의 행복만을 준비하며 서로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선택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게 될 배우자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한다. 이 시대 결혼을 앞둔 많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응원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창세기 2:23-24).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일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일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일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일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일열방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일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일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일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페리강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요일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일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정,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고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정

기구독 상담원 1명, 해외저작권 업무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기간: 6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자사 홈페이지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잡지편집자 1명

형태: 계약직(15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기: 7월 7일 금요일까지

접수: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일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일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일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정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형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

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NGO더멋진세상 채용 공고

모집: 후원담당자 1명

업무: 후원자 상담 및 후원 관리, 핵심 후원자 대상 후원 경험 향상을 위한 기획 및 실행

문의: 문주영 070-4402-3023

*자세한 사항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 참고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9: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일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일예배

토요일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분당

수요일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일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

국내 온누리교회		해외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아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릉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해골길 166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송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NI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8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욱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김요안나 고은아 강성호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시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정유미 정성진 정은숙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수 코바야시 메구 쿠보타치 하정준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한스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obyu ■ 지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준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종 홍규식 ■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신한제 손재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진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수형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운형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용식 염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필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김창근 윤한돈 김성식 임한식 윤영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보라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만규 박선영 박소람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엄혜숙 유기열 이경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7월 1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양희연, 반영옥(은혜침례교회 권사)의 아들
양근태(온누리교회)
고 문혁수, 이태림(새길교회)의 딸 문아현(온누리교회)

7월 1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재홍, 글로리아홍(뉴저지리빙스턴갈보리교회 집사, 집사) 아들 앤드류홍(뉴저지리빙스턴갈보리교회)
한철형, 정영숙(산성교회 목사, 사모)의 딸 한세진(온누리교회)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장소: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 성취력/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송),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6/16(금) 송파A 이정화성도 모친상 고 백임기
6/17(토) 브릿지33 박서희 성도 모친상 고 김은희
6/17(토) 강남C 장은정 권사 모친상, 도곡 장현정 집사 모친상 고 박광자
6/17(토) 서초C 박오진 선교사 부친상 고 박재구
6/18(주일) 경기A 조석민 성도 모친상 고 이선자
6/19(월) 양재A 임근희 집사 시모상 고 이다임
6/19(월) 관악금천 김달영 집사 모친상 고 진봉금
6/19(월) OCC 이강인 집사 모친상 고 김학지
6/19(월) 가정사역 이효숙 집사 부친상, 유승진 집사 빙부상 고 이강주
6/19(월) 마포 이승용 집사 모친상 고 문영순
6/20(화) 강촌 이현경 성도 부친상, 이동렬 성도 빙부상 고 이종만
6/20(화) 분당B 김동익 선교사 모친상 고 김정은
6/22(목) 분당A 고 배아진 집사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민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홍하영, 김다예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몸으로, 풍당!



소화기관 어드벤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배우는 인체탐험 키즈 애니메이션
쌍둥이 남매 찬이, 송이와 함께 '우리 몸으로, 풍당!'



풍당에서 만나요!



<우리 몸으로, 풍당!> 혈관 어드벤처 동화책은
두란노서점(서빙고, 양재,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도서판매수익금 전액은 풍당 키즈 콘텐츠 제작에 쓰입니다
문의: 풍당 고객센터 02.792.0691